

조선지리가에 나타난 남궁역의 구국사상과 지리관

강철성*

Geographic Perspectives and Patriotic Thoughts of Namsung-Oeok in Choseon Gyri Song

Chulsung Kang*

요약 : 본 연구는 19세기말 20세기 초 개화기 때, 남궁역이 작시한 ‘조선지리가’ 내용 중에서 가사 내용을 분석하여 당시의 구국활동과 지리관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선지리가’ 제1절은 우리나라 국토의 동서남북의 지명을 열거하여 국민들에게 영토의식을 심어 주었고, 특히 맹호로 나타낸 지도는 우리 민족의 강인과 정신과 기개를 표현하였다. 제 2절은 우리나라 남북간의 거리와 인구, 문화와 도덕의 우수함을 나타낸 내용이다. 제3절은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쾌적한 기후와 기름진 토양에서 각 종 산물이 생산되고 있다는 지리적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제4절은 해와 달과 같이 우리 강산과 민족이 영원히 무궁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노래는 국민들의 계몽과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사료된다.

주요어 : 개화기, 지리관, 영토의식, 경관, 애국심

Abstract :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ontent Analysis of ‘Choseon Gyri Song (조선지리가)’ in the period from the late of Nineteen century to the early of Twentieth, the period commonly regarded as the Enlightenment Period in Korea. During this period, This song consists of contents of Territorial consciousness, distance of north-south, populations, beautiful landscape, products in the comfort of climate and fertile soils. This song contains geographic perspectives and wide range of geographic facts, physical geography and human geography. Particularly, In terms of contents description in each phrase in this song, it is possible to conclude that real outcomes of this song education at the time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enlightenment and patriotism of people.

Key Words : Enlightenment period, Geographic perspectives, Territorial consciousness, Landscape, Patriotism

I. 서론

한서(韓西) 남궁역 선생의 70평생의 생활은 하루도 애국애족의 생활이 아님이 없었고, 하나하나의 행동이 조국의 독립을 위한 활동이 아님이 없었다. 선생의 일생의 전반기는 한일병합 이전 즉 구한말에 청, 러시아, 일본 및 미국 등 세계열강들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던 한반

도에서 사대사상에 물든 정부가 우왕좌왕하며 친청파, 친로파, 친일파, 친미파 등으로 나뉘어 나라가 망국으로 치달리던 구국 독립운동으로부터 시작된다.

기울어 가는 국운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정부와 국민이 소위 사대주의로 인해 남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어리석음에서 뛰쳐나와 주체의식을 되찾고 참된 독립을 이룩하는 것만이 있을 뿐임을 외치며, 진정한 독립 국가를 세워보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정열을 다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angchul52@cbnu.ac.kr)

받쳤던 것이다. 후반기의 활동으로서는 1910년 한일병합이 체결된 이후 사회운동, 종교운동 또는 교육을 통해 최후 순간까지 조국 광복을 위해 일본 제국의 무서운 탄압 밑에서도 최후까지 투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세한, 1960).

개화기의 지리사상과 지리교육에 관한 연구(황재기, 1979; 강운호, 1980; 장보웅, 1970; 남상준, 1986; 안재섭, 1997; 강철성, 2006)는 다소 있으나, 시가(조선지리가)는 단 1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남궁억 선생의 생애를 문헌을 통하여 서술하고, 그가 작사한 시가(詩歌)인 조선지리가를 통해서 남궁억 선생의 구국사상과 지리관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남궁억 선생이 작시와 작사를 그의 애국 생활과 함께 한 것은 예술가로서가 아니라, 시가(詩歌)를 만들어 제 2세와 3세들이 부르게 하여 이를 통해 조국에의 정신사상을 불어 넣어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가 작사한 시가(詩歌)에는 애국 애족의 혼이 들어있고, 독립사상을 고취하는데 있었다.

II. 남궁억 선생의 생애와 구국활동

1. 1910년 한일병합 이전

선생은 1863년 12월 27일, 서울 정동 왜송 골(정동 배재 학교 운동장 자리)에서 탄생하였다. 본관은 함열(咸悅)이며, 자는 치만(致萬)이요, 호를 한서(翰西)라 하였다. 그는 철쭉 때 무과 증추도사를 지낸 바 있는 남궁영 씨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왜송이란 유래는 임진왜란 때에 왜장 가토모 기요마사(加藤清正)가 말을 매었다는 소나무가 있어서 내려오는 동네 이름이다(김세한, 1960).

나이 여섯 살 되는 해(1868)부터 선생은 한문 글방에서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선생은 명문가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덕수(德水)이 씨 슬하에서 가난과 싸우면서 성장하게 되었다. 선생은 글방에서 한문을 수학하여 사서와 삼경을 다 읽고 문필에 능하였으나, 그가 수학하는 동안에는 눈물겨운 사실이 한두 가지뿐 만은 아니었다. 어머니 이 씨는 바느질품을 팔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에 아들을 글방에 보낼 도리가 없었다. 글방 훈장 조 씨에게 아들을 가르쳐 줄 것을 간청하여 비로소 승낙을 받아 정식으로 글방 학도가 되었다.

1878년(16세)에 선생은 남원 양씨 집안의 혜덕 씨와 결혼하게 되었다. 양씨가문은 양평군 광탄면 속칭 넓은 여울의 대성(大姓)으로 무과의 명문이다. 양씨는 요조숙녀이고 인품과 덕행이 높은 분으로 선생께 내조의 힘이 매우 컸었다.

1883년(21세)에, 그 당시 사회의 풍습에 따라 15년간 한문을 수학하던 선생은 국내외 정세에 눈을 뜨기 시작하여 한문만을 숭상할 시대는 아니라 깨닫고, 재동에 새로 개교한 영어 학교에 입학하였다. 이 영어 학교는 우리나라와 영국과 독일과 수교 조약이 체결되어 1883년에 설립되었다. 선생은 1년간 열심히 공부하였고, 다른 학생들보다 영어 실력이 뛰어나서 이듬해에 최우등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다. 졸업과 동시에 독일인 목인덕 씨가 총세무사(總稅務司) 겸 외무아문협판(外務衙門協辦) 직으로 있는 경성 총해관에 견습생으로 들어갔다.

1886년(24세)에는 내부 주사(內部主事)로 임명되어, 고종 황제 앞에 입시하여 황제의 어전 통역을 하게 되었다. 이듬해에 조 민희 씨가 전권대신으로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6개국을 순방할 때 통역 서기관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절단의 순방길은 청의 간섭과 국내 문제로 홍콩에서 좌절, 그 곳에서 2년 동안 발이 묶였다.

1889년(27세)에 홍콩에서 귀국하여 국내부 별군직(國內部別軍職)에 임명되어 4년간 봉직하게 되었다. 이 때 선생이 청렴하게 지내는 사실이 고종 황제에게 알려지게 되자, 고종은 이를 가장게 생각하여 서울특별시 팔판동 78번지 소재의 대지 200평, 건물 43칸짜리 기와집을 하사하였다.

1893년(31세)에는 칠곡 부사로 임명되어 동학란과 청일전쟁을 임지인 칠곡에서 경과하였다. 칠곡 부사로 임명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 민중을 착취하는 부패한 지방 관리들이 많아, 고종 황제의 특별한 어명으로 임명된 것이다. 선생은 칠곡에 부임하자 헤이해진 정사를 엄격하고 강직하게 처리하였고, 때마침 봉기한 동학란을 무사히 평정하였다. 이어서 순무사로 임명되어 혼란해진 백성들을 무마하여 폭도들을 다스리는 일에 큰 공적을 세웠다.

이어 1895년(33세)에 내부 토목 국장으로 승진하니, 때는 명성황후가 일본군에게 살해된 후라 사회가 대단히 어수선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서울 도시를 현대화할 계획을 세우고 우선 교통이 빈번하고 외국인인 많이 다

나는 종로통과 정동 길을 확장하였다. 그 다음으로 탑골 공원을 조성하였다. 이 탑골 공사에는 내부대신 남 정직을 비롯하여 보수파들의 반대가 심하였으나, 당시 복흥사(福興寺) 자리에 현재의 파고다 공원을 완성하였다. 내부대신 남 정직은 대신의 말을 거역한다고 황제께 상주하여 선생은 토목국장에서 면직되었다. 선생은 토목국장 재임 시에 민영환이 설립한 흥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국사를 가르치면서 애국심과 신문화 사상을 불어넣었다.

선생이 내부 토목국장으로서 재직하던 1896년은 국내적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해였다. 태양력을 사용하고 중국 연호를 쓰던 것을 우리나라 연호로 건양(建陽)이라 하였고, 신교육을 하는 학교를 세웠으며 단발령을 내리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니, 보수파에서는 반대가 심하여 매우 어수선한 시절이었다. 이 때 춘천 지역에 의병을 자칭하는 무리들이 창궐하게 되어 사회를 혼란케 하니, 내부대신 박정양이 고종 황제께 주청하여 선생을 선유사(宣諭使)로 임명하여 이들을 토벌케 하였다.

건양 원년(1896)에 선생은 사회 운동을 하기 위해 관직을 일시 물러나와 서재필과 협력하여 독립협회를 조직, 수석 총무 겸 사법 위원으로 일하면서 기관지 독립신문 영문판을 담당하였다.

광무 2년(1898) 3월 8일, 농상공부의 인가를 받아 그해 9월5일에 일간 황성신문을 창간하고 사장 겸 주필이 되었다. 황성신문은 우리나라 일간 신문으로서의 최초의 신문인데, 그 논평은 민족 문화 발전과 사회 계몽을 주로 하였다. 정부 부패의 시정을 촉구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경고하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 야욕을 통렬히 공격하고 국민들에게 애국심과 독립정신을 고취하였다. 또한 러시아와 일본의 한국 분할 점령 설을 황성신문 지상으로 통렬히 비판하다가 경무청에 검거되어 갖은 협박과 고문으로 고통을 받았다.

광무 6년(1902), 선생이 두 번째로 경무청에 구금되었을 때, 만민공동회를 비롯한 수 많은 시민들이 선생을 석방하라는 시위가 계속되어, 이 때문에 사형까지 내정되었던 선생은 고종 황제의 특별 은사로 석방된 적도 있었다.

관직을 일시 물러났던 선생은 1905년 다시 성주 목사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경상관찰사 이 근택의 상납 지시를 거부하고 그해 9월에 사임하였다. 이 때 서울에 돌아온 후 일진회 민족 반역자들의 준동을 목격한 후 충격을

받아 길 위에 졸도하였다. 얼마 후 11월 17일에 을사 보호 조약이 체결되자, 국내 민심이 물 끓듯 하고, 민영환 선생을 비롯하여 자결하는 우국지사들이 속출하였다.

1906년 1월에 선생은 양양 군수로 부임한 후, 행정에 복잡한 절차와 관습에 젖은 불필요한 것을 시정하고 모든 행정을 신제도로 간소화하였다. 그리고 몽매한 민중들에게 신문화 계몽을 하기 위하여 청년 운동과 교육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청년회를 조직하여 민중 계몽 운동을 시작하고 현산 학교(峴山學校)를 설립하여 신문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완고한 지방에서는 이 운동에 호응하지 아니하여, 선생은 부득이 강력한 조치로 200명을 모집하여 7월 20일에 현산 학교를 개교하였다. 당시의 교과목은 국어, 한문, 일어, 산수, 역사, 체조, 음악, 영어를 가르치는 근대 학교를 설립 운영하였다.

1907년(45세)년에는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일본은 고종 황제에게 양위를 강요하고 협박으로 7조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 국권은 완전히 상실하였다. 선생은 9월에 양양 군수를 사임하고 민간 정치 결사인 대한 협회를 조직, 그 회장에 선출되어 항일 투쟁을 계획하였으나, 발족 시부터 일본의 간섭이 심하여 정부의 압력으로 활동이 여의치 못하자 회장직을 사임하였다. 그 이듬해 6월에 '교육월보'를 발행했는데, 이 월보는 학교에서 정식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가정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한 오늘의 통신 강의록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경영난과 민중의 지식수준이 낮아 사업이 부진하다가 창간된 지 1년 만에 폐간되고 말았다.

을사 보호 조약의 체결에 이어 7조약이 체결되자, 국권은 완전히 상실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이에 대항하는 많은 애국 단체가 조직되어 구국 운동이 맹렬히 일기 시작하였다. 이 때 각 지방 인사들이 지방 명을 붙인 학회를 조직하였는데, 선생은 3월 2일 관동학회를 전동에 있는 자강회에서 발기하여 4월 2일에 창립총회를 하였는데, 선생이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2. 한일병합 이후의 생애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로 전락하여 일본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울분을 호소할 길 없는 선생은 이제는 구국 운동을 종교와 교육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가을에 남감리교 종교 예배당에 입교, 수개월 후에는 세례

를 받고 힘써 독실한 교인 생활을 시작하였다. 11월에는 배화 학당 교사로 초빙되어 교육에 직접 참여하며 종교인으로, 교육자로서 민족의식을 심는 구국 운동에 열심을 다하였다.

1914년에 선생은 '신편 언문체법(新編 諺文體法)'이라는 한글 붓글씨 교과서를 발간하였다. 이 밖에도 재직 중에 '가정교육'이라는 책을 편찬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그 내용은 시부모 섬기는 법, 남편 섬기는 법, 아이 기르는 법, 가정 예의 법, 친구 사귀는 법, 음식 먹는 법 등이 담겨 있어 학생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였다. 또한 선생은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 넣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화, 무궁화를 수놓은 지도를 창안하였다. 태백산맥 줄기를 무궁화 줄기로 표시하고, 뺨어나간 가지에 도별로 무궁화 한 송이씩 수를 놓아 금수강산 무궁화 동산을 상징하는 수본(繡本)을 고안하여 여학생들에게 애국 사상을 심어 주었다. 배화 학당에 8년간 재직하던 중 지나친 과로로 잠시 쉬기로 작정하고, 1918년 12월에 강원도 홍천 서면 모곡리(보리울) 마을로 내려갔다.

선생의 나이 57세가 되는 기미년에 31 운동이 일어나 방방곡곡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만세소리가 진동하였다. 선생은 농민들에게 삼일 운동의 정신과 목적을 알려주고 독립정신을 전파하였다. 이후 모곡리 마을에 모곡학교를 세워 낮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저녁에는 농민 계몽 활동에 주력하였다.

선생은 종교 활동과 교육 활동 이외에도 틈틈이 저술 활동도 하였으니, 그것은 곧 1924년에 완성을 본 사서(史書) '동사략(東史略) 전 4책의 저술이다. 저술을 완결한 후에 모곡학교가 6년제로 승격되었다(1926). 이 학교는 명칭은 보통 학교이지만 교과 내용은 중학교 과정이었다. 교과목에는 영어, 역사, 지리 등이 있었는데, 영어는 우리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선진국의 문화를 수용하려는 뜻이었다. 또한 학교에서 외국인인 영어 웅변대회를 열어, 학생들이 웅변을 구사할 정도의 영어 실력을 지니게 되었다. 특히 지리는 향토와 국토에 대한 애착심과 애향 애국 사상을 배양코자 교수하게 되었다. 이 때 지은 '조선 지리개'는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동사략'의 저술에 이어, 1929년 4월에는 사회집(史話集) '조선이야기' 전 5책의 집필 완성을 보게 되었다. '동사략'과 마찬가지로 '조선이야기'도 민족정신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저술하였다. 위의 두 책 외에 1931년

에 '조선어 보충' 을 집필 완성하였는데, 학교 교과목에 조선 역사를 정식으로 편성할 수가 없어서 '조선어 보충'이란 과목을 붙여 놓았지만, 이것 역시 역사 교과서이다.

1933년 71세 되는 해에 선생은 무궁화와 조선 역사 사건으로 마침내 체포되었다. 이보다 앞서 4월 29일, 상해의 홍구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시라가와(白川義則) 대장을 폭사시킨 의거가 일어났었다. 이로 인하여 일제는 최후의 발악으로 전국의 애국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으며, 한서 선생에게도 이 영향으로 구금까지 되었다. 선생은 홍천 경찰서에서 취조를 받을 때 항일 사상을 시인하였고, 조선 독립의 당연성을 역설하며, 조금도 당황하거나 겁을 내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취조관들을 대하였다. 그 당시의 취조관인 신현규와의 대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조용구, 1973).

신현규 : “조선을 독립시켜 준다면 능히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가?”

남궁억 :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는 민족임을 알진대 어찌 무능하다고 보는가?”

신현규 : “조선이 꼭 독립되리라고 확신하는가?”

남궁억 : “ 우리 민족은 자고로 남의 민족의 침략을 당한 적은 없고, 혹은 침입을 당한 적은 있으나 오래지를 못했던 것이니, 꼭 독립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다음에는 홍천 경찰서장인 도미다(富田之松)가 선생을 서장실로 청하여 전향하기를 권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강경한 태도로 거절하고, 끝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1934년 3월에 서울 지방 검찰청에서 선생은 1년 복역, 3년 집행 유예판결을 받았다. 7월에는 병보석으로 석방되어 모곡 마을로 돌아와서 요양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고령으로 옥고를 치른 후, 쇠약하여 가는 몸으로도 전도와 농촌 계몽에 전력을 다하다가, 1939년 4월 5일 오전 9시에 모곡의 자택에서 세상을 하직하였다. 구국 운동에 일생을 바쳐 동분서주하였으나, 숙원을 풀지 못한 채 하남의 부름을 받으니 향년 77세였다.

III. 조선지리기의 내용분석

한서 선생은 보통학교 교과서에서 두 가지 그림에 늘 분개하였다. 그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뽕잎에 누에가 달려 엮으려 뽕잎을 먹어 가는 것과, 또 하나는 흰 바지저고리만 입은 얼굴이 까맣게 탄 할아버지가 상투를 틀고 지게 옹기 항아리를 높다랗게 지고 있는 사진을 삽화로 넣은 것이다. 이는 일제가 일본 문화가 우수하고, 조선은 미개한 나라여서, 일본의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려는 의도로 고의적으로 그려 넣은 것이다.

이에 선생은 ‘조선지리기’를 작사하여 우리나라 지도를 맹호로 나타내어 노래로 부르게 하였다. 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절 : 북편에 백두산과 두만강으로
남편에 제주도 한라산까지
동편에 강원도 울릉도로
서편에 황해도 장산곶까지
우리 우리 조선에 아름다움을
맹호로 표시하니 십삼도로다.
- 2절 : 사천년 역사로 이어 온 배달
거룩한 단군이 비로소시사
삼천리 반도로 우리 집 삼고
이천만 동포로 한 집안 이뤄
우리 우리 조선의 광채로움을
문화와 도덕으로 빛내었도다.
- 3절 : 산 높고 물 맑은 무궁화 동산
아름다운 경개로 장식하였고
기후 좋고 기름지며 교통이 편해
세계의 자랑이 조선 반도라
우리 우리 조선의 유명하움을
경개와 산물로 자랑하도다.
- 4절 : 우리를 낳고 기른 반도 강산아
네 길이 복 받고 무궁하여라
삼각산의 암석이 다 부서지고
양양한 한강물이 다 마르도록
우리 우리 조선의 아름다움을
일월(日月)로 한가지로 짝하리도다.

제 1절 1, 2행은 조선 지도의 남북을 그리고, 3, 4행은 동서를 그린 것이며, 6행은 맹호로 표시하였다. 일제는 한국인을 멸시해서 누에가 뽕잎을 먹어 들어가듯, 조선을 점진적으로 일본화하려는 야망을 가졌다. 선생은 조선 지도를 호랑이로 그리되 일본을 향해있는 그림을 학생들에게 그리게 하였다. 입을 벌린 호랑이 머리가 부산이고 앞발이 여수와 목포요, 진남포와 백두산이 뒷발이 되어 방금 용을 쓰면서, 뒷발에 힘을 주어 달릴 듯이 꼬리를 편 것이 청진과 나진이었다. 그리고 동해안은 함흥, 원산, 강원도가 믿음직한 척추가 되었다(김세한, 1960). 그런데 일본은 19세기 후반 아시아 침략을 꾀하면서 한반도를 토끼 모양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일본 메이지(明治) 초기 지리학자인 오가와 다쿠지(小川琢治)가 중등학교 지리교과서에 ‘한반도는 토끼와 같은 모양’ 이라고 쓴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동아일보, 1997). 선생은 이러한 지도를 그리게 함으로써, 호랑이와 같은 기개로 민족 자주와 독립을 되찾자는 뜻이 담겨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인의 비위를 거슬러서 그 후에 노래도 그림도 금지되었다.

제 2절, 1행에서 2행까지는 한민족의 4천년 역사와 단군 시조를 언급하여 자랑스러운 배달민족의 긍지를 높였다. 3행과 4행은 남북 간의 거리가 삼천리이고, 그 당시의 인구가 2천만이었다는 지리적 지식을 알리는 내용이다, 5행과 6행에서는 조선의 문화와 도덕이 매우 뛰어났음을 자랑하고 있다.

제 3절의 1행에서는 조선이 산천이 수려한 무궁화동산임을 널리 알리고 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이다. 전해오는 말로는 무궁화를 우리나라의 국화로 삼은 것은 선생이 한말 칠곡 부사로 있을 때, 윤치호 선생과 상의한 후에 정한 것이라고 한다(손인수, 1972). 그래서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나라꽃으로 민족의 얼을 상징하게 되었고, ‘무궁화 동산’ 이라면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표현한 단어로 간주할 수 있다. ‘애국가’에 ‘무궁화 삼천리’라는 구절이 있게 된 것도 선생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 ‘무궁화 삼천리’라는 애국적인 구절은 독립운동 초기 때 배재 학당 학생들이 부른 ‘조선가에 이미 있었다고 한다(김세한, 1960). 2행에서 6행까지의 내용은 4계절의 변화가 있는 기후가 좋고, 논밭이 비옥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하고 다양한 생산물을 자랑하는 내용이다.

제 4절의 1행과 2행은 우리 민족이 태어나고 성장한

삼천리강산이 영원토록 무궁 발전하라는 기원이 담겨있고, 3행에서 6행은 삼각산의 암석이 다 풍화되고 한강물이 다 마르도록 삼천리 반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해와 달과 같이 영원함 같이 우리 배달겨레가 영원하리라는 내용이다.

IV. 결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개화기에는 근대교육의 제정기였으며, 학교 관제와 규칙들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국어, 산술, 역사, 지리, 영어 등도 교과목 편제에 중요한 과목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당시의 우리나라의 교육은 서양 학문의 내용과 서양세계에 대한 소개가 근대 학교의 교과서를 통해 전달됨으로써 과거와는 구별되는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교육의 방향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애국심과 민족 자긍심의 고취, 국제적 시각의 필요성을 위해 강조되었다. 특히 지리에서 외국 문물에 어둠던 당시에 국민이나 지식층의 계몽을 위하여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은 국제 정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보급이라고 생각하고, 국토에 대한 지식과 세계지리에 대한 내용 소개가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남극역은 국토의 중요성과 애국사상을 깨우치기 위해, ‘조선지리가’를 작시하여 학생과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쉽게 부르게 하였다. 따라서 ‘조선지리가’의 함축된 의미는 바로 국가 생존을 위한 민족 보존, 국가관념, 애국사상, 민족교육 그리고 교육구국운동 등이 내포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남극역이 작시한 ‘조선지리가’에 나타난 애국사상과 지리관의 내용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 1절은 우리나라의 국토의 동서남북의 지명을 열거하여 국민들에게 영토의식을 심어주었으며, 특히 맹호로 나타낸 우리나라 지도는 우리 민족의 강인한 정신과 기개를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남북 간의 거리와 인구 수, 문화와 도덕의 우수함을 사실적인 지리 지식을 소개한 내용이다.

셋째,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쾌적한 기후와 기름진 토양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생산물을 산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였다. 특히 우리나라가 아름답게 표현한 ‘무궁화동산’이라는 것을 널리 선포하고 있다.

넷째, 삼천리강산이 영원토록 무궁 발전하라는 기원

이 담겨 있고, 해와 달과 같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원하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문헌

강운호, 1982, “개화기의 교과서: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 교육개발, 41(2), 18-31.

강철성, 2006, “현재의 대한지지 내용분석: 자연지리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4(2), 109-118.

_____, 2009, “사민필지의 내용분석: 자연지리를 중심으로”, 한국지형학회지, 16(3), 67-75.

_____, 2010, “문답 대한 신지지 내용분석: 자연지리를 중심으로”, 한국지형학회지, 17(4), 17-27.

김세환, 1973, “한서 선생의 시가: 시가를 통해서 본 한서 선생의 구국사상”, 나라사랑, 11(2), 90-107.

남상준, 1988, “개화기 근대교육제도와 지리교육”, 지리교육논집, 19, 99-111.

안재섭, 1997, “개화기 지리지식의 사상적 원류와 지리교육”, 지리교육논집, 37, 107-117.

장보웅, 1970, “개화기의 지리교육”, 지리학, 5, 41-58

조용구, 1973, “한서 선생 일대기: 스승 한서 선생의 구국적 생애”, 나라사랑, 11(2), 108-124.

황재기, 1979, “지리과 교육과정의 변천: 구한말-일제말”, 사대논총, 20, 31-44.

동아일보 기사, 1997년 1월 4일.

교신 : 강철성,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kangchul52@cbnu.ac.kr)

Correspondence : Chulsung Kang, 361-763, 52 Naesoo-dong-ro, Heungduk-gu, Cheongju, Chungbuk,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kangchul52@cbnu.ac.kr)

투 고 일: 2013년 4월 11일
심사완료일: 2013년 4월 28일
투고확정일: 2013년 4월 30일